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결혼 만족도에 대한 가족 외부 지원과 경제적 압박의 상호작용 효과

권 희 경(창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I. 문제 제기

가족이 사회라는 거시적인 체계와 상호 작용하는 미시체계라고 볼 때,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와 침체는 가족 생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서 작용한다. 지난 2008년부터 급격히 후퇴한 경기는 2009년 상반기에 혼인 및 출산 지연과 감소, 생활고로 인한 이혼, 자살 등의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거시적 차원의 경제적 상황이 미시적인 가족체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경제적 압박 하에서 가족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곽인숙, 송효숙, 김경애, 1999; 박명희, 1998; 안병철, 1998; 이미숙, 고선주, 권희경, 2000; 최규련, 1999; 최혜경, 1998; Kwon, Rueter, Lee, Koh, & Ok, 2003)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에 따른 스트레스가 부부관계와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한편, 위기를 겪는 가족을 이해하는 데 있어 더욱 중요한 것은, 가족이 어떻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경제위기 등의 생활의 위기를 개인발달의 수준에서나(Elder, 1974), 가족생활의 수준(Conger, Rueter, & Conger, 1999; Conger & Conger, 2002)에서 잘 극복하고 변화된 상황에 잘 적응하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개인의 발달과 가족의 여러 기능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가족도 있다(Eler & Caspi, 1988; Elder, Conger, Foster, & Ardel, 1992; Lempers, Clark-Lempers, & Simons, 1989; Meyhew, 1998; Meyhew & Lempers, 1998; Vinokur, Price, & Caplan, 2006; Voydanoff, 1990; White & Rogers, 2000). 이러한 차이는 삶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극복하는 가족의 레질리언스 수준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연구자들이 가족의 건강성과 긍정적인 능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부각되기 시작한 레질리언스 개념은 가족이 스트레스와 역경을 극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McCubbin & McCubbin, 1988; Walsh, 2006). 개념적인 차원에서 가족레질리언스가 이론적인 면에서는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에 비해, 실질적인 가족 관계와 생활의 측면에 있어서 가족이 역경을 극복하고 관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그리 많지 않다(Hawley & DeHaan, 1996; Patterson, 1998; 2002). 따라서 가족이 경제적 위기나 스트레스를 겪고 있을 때, 이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가족 외부 지원의 효과를 알아보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경제적 위기상황에 있는 최근 한국사회와 가정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Conger와 Elder(1994)가 제시한 가족스트레스 모델(Conger & Elder, 1994; Conger et al.,

1999)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가족 외부의 사회적 지원이 경제적 압박과 정서적 스트레스,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완화 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가족이 경제적 압박이라는 스트레스와 역경을 극복하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기제를 탐색하고, 실제적인 측면과 이론적인 측면에서 가족 생활의 레질리언스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문헌 고찰

1.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가족의 경제적 압박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는 어느 정도의 예측되고 규범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발달적 스트레스라기보다는 환경요인에 의해 일어난, 예측할 수 없는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다. 사회와 개인의 삶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회적 변화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예측하지 못한 스트레스는 개인과 가족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적 위기가 가족생활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두 가지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Conger & Elder, 1994). 그 하나는 경제적 긴장사건 또는 위기 사건으로서, 사회의 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해 가족이 1차적으로 겪게 되는 경제적 사건들이다. 즉, 가족원의 실업, 소득 감소, 직업의 불안정성 증가 등으로 나타나는 객관적인 가족의 경제적 상황 변화이다. 1997년의 경제 위기 직후 실업과 실직, 또는 직업적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안병철, 1998; 최규련, 1999; 최혜경, 1998)이 이에 해당된다.

다른 하나는 경제적 압박으로서, 가족이 처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2차적으로 나타나는 가족생활의 변화이다. 경제적 압박에는 가계수지 악화, 채무의 증가, 자산 감소와 함께, 가족이 변화된 상황에 반응하여 가족의 경제생활에 변화를 주는 것들이 포함된다. 즉, 가계수지를 맞추기 위해 소비와 구매 패턴을 변화시키거나, 가족의 경제적 요구를 위해 금융상품을 해약하거나, 금융기관이나 친지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의 사건이 경제적 압박의 예이다. 가족스트레스 이론에서는 객관적인 사건이나 위기 그 자체보다는 이에 대한 가족의 반응과 적응을 더 중요하게 본다(Boss, 2000; Conger & Elder, 1994). 따라서 가족이 겪는 두 가지의 경제적 위기 중에서 가족의 경제적 위기에 대한 반응인 경제적 압박에 가족생활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경제적 위기로 인한 가족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경제적 압박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미국의 경우 80년대에 농업경제 위기와 함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경험한 이후, 경제적 압박과 가족생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최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 대체로 많은 연구(Conger et al., 1990; Larson, Wilson, & Belley, 1994; Ulrichson & Hira, 1985; Voydanoff, Donnelly, & Fine, 1990; Windle & Dumenci, 1997)들이 경제적 스트레스가 가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지속적인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낮은 가족생활만족도와 관련된다거나(Larson et al., 1994; Voydanoff et al., 1990), 높은 수준의 경제적 압박을 경험한 가족에서 정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이 높으며, 종단적으로 자녀의 우울감이나 정서적 부적응이 관찰된다는 결과(Conger et al., 2000; Kwon, 2003)를 보고 하고 있다.

그에 비해 199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통한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상황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흔히 'IMF 시기'로 대변되는 1997년 후반기의 급박하고 전반적인 경제 위기 이후에야 경제적 압박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와 마찬가지로, 가족원의 정서적 부적응, 부부관계와 생활만족도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적 위기의 부정적 영향을 보여 주었다(곽인숙, 송효숙, 김경애, 1999; 박명희, 1998; 이미숙외, 2000; 조은숙, 박혜인, 1998; 최규련, 1999; Kwon et al., 2003).

부부가 중심인 핵가족 시대에 가장 중요한 가족생활의 일부가 부부관계이므로, 경제적 압박과 부부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경제적 위기가 가족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부부관계는 생활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일반적인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정자, 1998; 고정자·김갑숙, 1996; 이희정·이숙현, 1995; Guelzow et al., 1991; Windle & Dumenci, 1997). 특히 부부관계를 측정하는 연구들은 대체로 결혼만족도나 갈등, 친밀감 등의 요소로서 부부관계를 측정하여 생활의 질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데 주력해 왔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부부관계를 파악하는 데에는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가 적합한 주제가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불만족의 측면이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으며, 현재 보도되고 있는 경향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적 스트레스는 가족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적 위기는 전 사회에 부과된 것이지만, 그에 대한 지각과 반응은 가족마다 다를 수 있다. 어떤 가족은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가 더 결속력 있는 가족이 되는 반면에, 어떤 가족은 이혼, 자살 등을 통해 가족해체라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 가족의 레질리언스 수준이다. 가족의 적응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가족의 레질리언스 요소들이 어디에서 발견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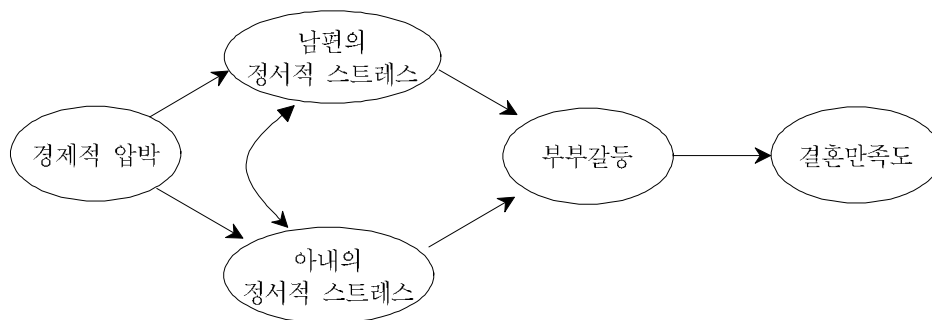
3.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 가족외적 지원

스트레스 사건이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원을 그러한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원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은 개인과 가족의 레질리언스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자원이 될 수 있다 (Cohan & Bradbury, 1997; Cutrona, 1996; Perling & McCall, 1990). 미국의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압박을 경험하고 있는 가족에게 사회적 지원이 정서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Conger et al., 1999)가 나왔는데, 이는 우리 가족에게도 사회적 지원이 경제적 압박을 완충하는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사회적 지원은 하나의 총체적인 개념으로 구성되었다기 보다는 여러 하위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며, 일반적으로 제공받은 지원보다는 지원에 대한 지각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고선주, 1996; Cutrona, 1996). Silliman(1997)은 체계적인 관점에서 가족의 레질리언

스를 강화하는 요소가 가족 내외에서 동시에 발견될 수 있다고 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족 외부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Ⅲ. 이론적 배경: 경제적 압박에 따른 가족스트레스모델 (Family Stress Model: Conger & Elder, 1994)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설계 및 조사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은 Conger와 Elder(1994)가 개발한 ‘경제적 압박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모델’⁷⁾이 제공하였다. 거시적인 사회 상황 또는 경제 환경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온 두 학자는 1980년대 미국의 경기 침체가 미국의 중산층 가족에 미친 영향을 종단적으로 연구하면서 가족스트레스 모델을 제안하고 발전시켰다. <그림 1>은 초기의 가족스트레스 모델로서 가족이 겪는 경제적 위기가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모델에 따르면, 가족이 겪는 경제적 위기는 먼저 남편과 부인 개인의 정서적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부부갈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일어나는 생활 사건이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부부 싸움 등 갈등을 겪는다고 보다는, 남편과 부인이 개인적으로 불안, 좌절, 적대감 등의 정서적인 스트레스 과정을 통해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상정한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증폭된 부부갈등이 결혼 만족도, 결혼 안정성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의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1> 경제적 압박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모델 (Conger & Elder, 1994)

이후 경제 위기를 통한 어려움이 부부갈등을 거쳐 부모의 자녀 양육행동 및 청소년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중국에는 청소년의 정서적 행동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종단적 과정을 미국 중서부의 중산층 가족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 연구(Iowa Youth and Families Project)를 통해 검증하였다(Conger et al., 2000).

이 이론적 모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가족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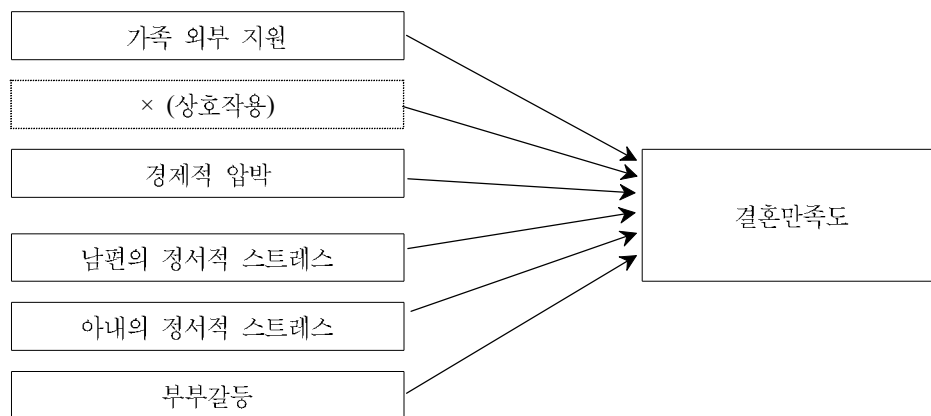
7) Conger와 Elder(1994)은 ‘가족스트레스 모델(Family Stress Model)’이라고 명하였으나, Boss(2000)의 가족스트레스 모델과 구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압박에 따른 가족스트레스모델’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연구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이 있다. 첫째, 거시적인 경제 상황의 변화가 가족의 상호작용을 통해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광범위하고 종단적으로 연구한 거의 첫 번째 연구로서 현재 미국에서도 경제 상황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언급할 때 첫 손에 꼽히는 연구들이다.

둘째, Conger와 Elder의 경제적 압박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모델은 미국에서 개발되었으나, 이후 다양한 국가와 경제 상황에서 검증되고 그 타당도를 인정받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도시 지역 저소득층 가족에 대한 연구에서 부부 갈등과 불안정성을 설명하는 모델로 인정을 받았으며(Vinokur et al., 1996) 1990년대 초 경기 침체를 겪은 핀란드(Kinnunen & Pulkkinen, 1998),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후 극심한 경제 불안을 경험한 체코공화국(Hraba et al., 2000), 1997년 경제 위기를 경험한 우리나라의 가족(Kwon et al., 2003)에도 적용되어 사회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변용되어 사용될 수 있는 이론 틀로서 자리매김하였다.

셋째, 가족스트레스 모델을 통해 단순히 경제적 위기가 가족 스트레스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뿐만 아니라 가족이 그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레질리언스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접근하였다(Conger et al., 1999; Conger & Conger, 2002). 따라서 본 연구의 관심사인 사회적 지원을 통한 가족 레질리언스를 탐색하는 데에도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림 2>는 경제적 위기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모델에서 출발하여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및 경제적 압박과 가족 외부 지원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도식화하였다. 경제적 압박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모델에 사용된 변수들이 측정변수이자 독립변수로서 포함되었으며, 가족 외부 지원, 가족 외부 지원과 경제적 압박의 상호작용 항이 추가되었다.



<그림 2> 결혼만족도에 대한 가족 외부 지원과 경제적 압박의 상호작용

가족 외부 지원과 경제적 압박의 상호작용 항은 ‘경제적 압박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모델’에 등장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경제적 압박과 가족 외부 지원이 상호작용하여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경제적 압박과 가족 외부지원의 상호작용 변수가 결혼만족도에 대하여 유의하게 관련이 된다면, 이는 가족 외부 지원의 높고 낮음에 따라 경제적 위기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한다.

본 연구의 초점은 가족 외부 지원의 경제적 압박의 영향력을 상쇄하여 결혼만족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 있다. 따라서 가족 외부 지원과 다른 변수들의 상호작용은 가설과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가족스트레스 모델에 등장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적 지원이 경제적 압박과 상호작용하여 경제적 압박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가족의 레질리언스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V.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 가족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족 중 가족생활주기 상으로 자녀교육기에 해당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가족발달 주기상에서 볼 때, 가족에는 두 번의 경제적 위기(Life Cycle Squeeze)를 맞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신혼기 및 자녀출산기이며 두 번째는 청소년 자녀이다(Voydanoff, 1990). 즉, 이 때에는 가족자원보다 지출이 많고, 가족이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신혼기 및 자녀 출산기에는 부부로서의 적응과 부모로서의 적응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발달적 위기가 경제적 스트레스와 구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출압박의 측면을 고려하여 자녀교육기 가족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가와 거주계층을 고려하여 초등, 중등학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한 뒤 수거하였으며 부부 236쌍, 총 472명이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었다. 이 중, 응답이 완전하지 않은 질문지를 제외한 총 188쌍 부부의 응답을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 가족의 특성과 연구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는 Kwon et al.(2003)에도 제시되어 있다.

1998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이루어진 설문을 통해 남편과 아내로부터 가족생활과 부부관계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 본 연구를 위해 정보를 제공한 남편의 평균 연령은 42.5세였으며, 아내의 평균 연령은 39.7세였다. 설문 당시 평균 결혼 지속년수는 16.1년이었다. 그리고 1997년의 월평균가족소득의 중간값은 2,316,100원이었다. 참고로, 1997년 4인기준 근로자 가구당 한 달 평균 소득이 2,352,741 원이었으며, 2004년 2/4분기 현재는 3,264,474원 가량이다(통계청, 2004).

2. 측정 도구의 구성

본 연구를 위한 측정 도구는 가족스트레스 모델에 사용된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즉, 경제적 압박, 정서적 스트레스, 부부갈등, 결혼만족도를 남편과 부인의 응답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가족 외부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을 추가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범위, 신뢰도와 변수간 상관관계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변수 간 상관관계 (n=188)

변수	1	2	3	4	5	6
1. 경제적 압박	-					
2. 남편의 정서적 스트레스	.25**	-				
3. 아내의 정서적 스트레스	.31**	.36**	-			
4. 부부갈등	.29**	.12	.38**	-		
5. 결혼만족도	-.21*	-.22*	-.31**	-.42**	-	
6. 사회적 지원	.11	-.13*	-.17*	-.10	-.12	-

*p<.05 **p<.01

1) 경제적 압박

경제적 압박은 가족이 인지하고 느끼는 가족의 경제적 환경에 대한 평가로서, 객관적인 경제적 상황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되고 있다(Conger & Elder, 1994 ; Conger et al., 1993 ; 1999; Hraba et al., 2000). 경제적 압박은 가족스트레스 모델에서 사용된 문항을 바탕으로 하여 1) 가계수지를 맞추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2) 지출을 줄이기 위한 조정, 3) 대출 또는 빚의 세 가지 차원에서 구성되었다. 지난 6개월 동안 각각에 해당되는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남편과 부인의 응답 (1=예, 0=아니오) 평균을 합산하였다.

2) 정서적 스트레스

정서적 스트레스는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PSS: Cohen, Kamarck, & Mermelstein, 1983)를 사용하여 1) 부정적인 심리적 증상과 2) 생활사건에 대한 대처의 어려움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측정하였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좌절, 불안, 화 등의 심리적 증상과, 일상적인 생활사건에 대한 통제력 부재와 대처 능력 부족 등을 묻는 Likert scale (1=전혀 그렇지 않았다, 5=매우 그랬다) 14 문항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응답을 각각 합산하였다.

3) 부부갈등

부부갈등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족 관계와 부부 생활을 둘러싼 의견 불일치, 언쟁, 싸움의 빈도를 묻는 13 문항의 Likert scale (1=전혀 없었다, 2=언제나 그랬다)에 대한 남편과 부인의 응답을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4)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정현숙(1997)이 수정한 Kansas Marital quality Scale (RKMS)을 사용하였다. RKMS는 전반적인 결혼 생활, 배우자,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배우자의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추가한 것으로서, 남편과 아내의 응답(1=매우 불만, 7=매우 만족)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5) 가족 외부 지원

가족 외부 지원은 남편과 아내의 응답을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가족 외부 지원은 남편과 부인이 지각하고 있는 가족 외부의 사용 가능한 지원들로서, ‘우리 가족이 문제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친지가

있다,’ ‘친척들이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웃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지역의 복지관에서 정보를 얻는다,’ ‘종교에서 도움을 얻는다,’ ‘문제가 있을 때 가족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등의 공공건강관련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등으로 구성된 10 문항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응답(1= 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3. 분석 방법

가족 외부 지원이 갖는 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 가지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가족스트레스 모델을 기준으로, 결혼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 모형은 세 단계에 걸쳐 분석하였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경제적 압박, 정서적 스트레스, 부부갈등이 독립변수로 포함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가족 외부 지원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였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지원의 상호작용항이 독립변수로 추가되었다. 각 단계에서의 R² 값의 변화와 함께, 마지막 단계에서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지원의 상호작용항이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가를 살펴 보았다.

둘째,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으로서 플롯화와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가족을 경제적 압박과 가족 외부 지원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네 집단(경제적 압박이 높고 가족 외부 지원이 높은 집단; 경제적 압박이 높고 가족 외부 지원이 낮은 집단; 경제적 압박이 낮고 가족 외부 지원이 높은 집단, 경제적 압박이 낮고 가족 외부 지원이 낮은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집단의 결혼 만족도를 플롯화 하여 t-score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의 초점은 가족스트레스 모델에 사용된 중요 변수를 중심으로 가족외부의 사회적 지원이 갖는 완화효과를 알아보는 것이었고, 또 연구에 참여한 가족에서 남편의 65%와 아내의 47%가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이는 등, 사회인구학적인 면에서 큰 편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회귀분석모델에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포함시키지 않고, 가족스트레스모델에 등장하는 중요 변수만을 포함시켰다.

V. 연구 결과

1. 경제적 압박과 가족 외부 지원의 상호작용 효과

경제적 압박과 가족 외부 지원의 상호 작용 효과가 결혼 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따르면, 모델 2에서의 가족 외부 지원과 모델 3에서의 가족 외부 지원과 경제적 압박의 상호 작용항이 결혼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을 가지며, 각 항이 포함될 때마다 결혼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단계별로 나타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모델 1)에서는 경제적 압박, 정서적 스트레스, 부부갈등만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모델 1에서는 회귀방정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이 결혼만족도 변량을 2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 중 아내의 정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이 유의하게 결혼 만족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

<표 2> 결혼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

변 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B (SE B)	β	B (SE B)	β	B (SE B)	β
경제적 압박	-2.28 (1.24)	-.12	-2.10 (1.10)	.11	-2.23 (1.21)	-.10
남편의 정서적 스트레스	-.14 (.10)	-.07	-.15 (.11)	-.09	-.11 (.08)	-.06
아내의 정서적 스트레스	-.18 (.09)*	-.25	-.17 (.08)*	-.22	-.15 (.08)	-.12
부부갈등	-.22 (.04)***	-.37	-.21 (.04)***	-.36	-.21 (.05)**	-.37
가족 외부 지원			.72 (.32)*	.19	.68 (.34)*	.19
경제적 압박×가족 외부 지원					2.00 (.83)**	.54
Constant	33.88 (2.01)***		29.20 (2.44)***		35.75 (3.64)***	
R ²	.22		.23		.27	
ΔR^2	.22		.01***		.04***	

*p<.05, **p<.01, ***p<.001

다. 경제적 압박은 직접적으로 결혼 만족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결혼만족도와 가장 관련이 높은 변수는 부부갈등이었다($\beta=.37$).

경제적 압박과 결혼만족도 간에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은 경제적 압박에 따른 가족 가족스트레스 모델이 제안하는 바와 같다. <그림 1>에서 보듯, 경제적 압박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모델에서는 경제적 압박 자체가 직접적으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정서적 스트레스, 부부 갈등을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남편의 정서적 스트레스도 결혼만족도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압박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모델을 적용하여 공변량구조분석한 결과(Kwon et al., 2003) 남편의 정서적 스트레스는 부부갈등과 관련이 없었는데, 이는 남편의 정서적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와도 관련이 없을 것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남편의 정서적 스트레스와 결혼 만족도 사이의 관계 부재 역시 과거의 연구 결과와 일맥 상통한다고 하겠다.

두 번째 단계(모델 2)에서는 가족 외부 지원을 추가하여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가족 외부 지원을 독립 변수로 추가함으로써 결혼만족도 변량에 대한 모델 2의 설명력은 23%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 결과, 아내의 정서적 스트레스, 부부갈등, 가족 외부 지원이 유의하게 결혼만족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도 결혼만족도와 가장 관련이 큰 변수는 부부갈등이었다. 모델 1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압박과 남편의 정서적 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사회적 지원은 결혼만족도와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독립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적 지원이 1단위 증가할 때, 모델 2의 결과는 결혼만족도는 척도상으로 .72 증가함을 보여 준다. 상대적 영향력의 순위는 부부 갈등과 아내의 정서적 스트레스에 이어 3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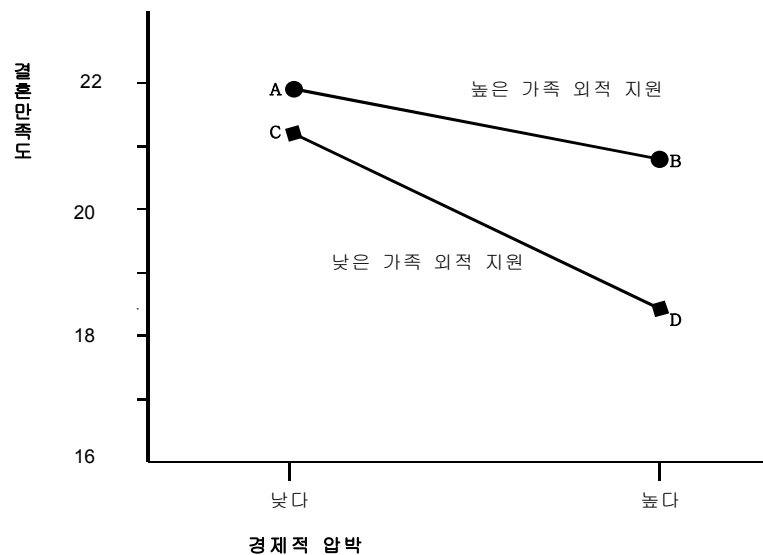
마지막 단계(모델 3)에서는 가족 외부 지원 이외에도 경제적 압박과 가족 외부 지원의 상호 작용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결혼만족도 변량에 대한 모델 3의 설명력은 27%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변수는 부부 갈등, 가족 외적 지원, 가족 외적 자원과 경제적 압박의 상호작용이었다. 모델 3에서는 이 전의 두 모델에서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없던 경제적 압박과 남편의 정서적 스트레스 외에도 아내의 정서적 스트레스 역시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만족도에 대하여 가족 외부 지원이 경제적 압박과 상호작용하면서 완화 효과를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iken & West, 1991).

2. 경제적 압박과 가족 외부 지원에 따른 결혼 만족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가족 외부 지원과 경제적 압박이 상호작용하여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를 좀 더 가시적으로 살펴 보기 위하여 플롯 분석을 하였다.

<그림 3>은 경제적 압박과 가족 외부 지원에 따른 결혼 만족도를 플롯화하여 보여 주고 있다. 중앙값을 기준으로 가족 외부 지원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 외부 지원이 높은 집단에는 96 쌍의 부부가 포함되었고, 낮은 집단에는 92 쌍의 부부가 포함되었다.



<그림 3> 경제적 압박과 가족 외부 지원의 상호작용 효과

이 결과에 따르면, 가족 외부 지원이 높은 집단에서는 경제적 압박의 수준에 따른 결혼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가족 외부 지원이 낮은 집단에서는 경제적 압박에 따른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원의 수준에 따른 결혼 만족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원이 높은 집단(선 A-B)에서는 경제적 압박이 낮은 경우(A) 결혼 만족도 수준이 21.9, 경제적 압박이 높은 경우(B) 결혼 만족도 수준이 20.8($t = 1.15$)로서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 외부 지원이 낮은 집단(선 C-D)에서는 경제적 압박이 낮은 경우(C) 결혼 만족도 수준이 21.2, 경제적 압박이 높은 경우 결혼 만족도 수준이 18.1($t = 1.97, p < .05$)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V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가족스트레스모델에 바탕을 두고, 가족 외부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이 경제적 압박과 상호작용하여, 경제적 압박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경제적 압박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모델에 사용된 개념을 중심으로 결혼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압박과 가족 외부 지원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플랫폼화 하여 결혼만족도 점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가족 외부 지원이 경제적 압박에 따른 결혼 만족도에 대하여 완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부부간의 사회적 지원이 경제적 압박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Conger et al., 1999)와 유사한 맥락에서, 가족 외부에서의 사회적 지원을 통해 가족이 경제적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레질리언스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연구의 이론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먼저, 가족 연구의 이론적인 측면에서 가족 외적인 지원이 가족의 레질리언스를 강화할 수 있는 요소임을 보여준다. 이는 Silliman(1997)이 제안한 대로, 체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하는 요소가 가족 외부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 레질리언스가 가족스트레스 과정에서 발견되는 것으로서(Patterson, 2002), 두 개념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존재하는 것임을 시사하기도 한다. 또한 실제적인 측면에서, 가족 외부 지원을 통해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밝혔으므로, 가족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가족 외부 지원을 모색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고려하고 극복해야 할 본 연구의 한계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 외부 지원의 원천, 즉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어디로부터 가능한가만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가족 외부 지원의 제공자로부터의 지원이 경제적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지만, 구체적으로 제공되는 지원의 정도와, 그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측정되지 않았다. 기존의 사회적 지원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원의 정도와 종류에 따라서도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선주, 1996; Julien & Markman, 1991).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의 원천과 함께, 그 지원의 종류와 정도, 그리고 그에 대한 가족의 만족도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모두 남편과 아내의 자기 보고에 의해 측정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실제보다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여러 연구들이 자기 보고에 의한 정보만을 이용해 개념을 측정하는 것의 한계점을 지적한 바 있으므로(Conger et al., 1999; Lorenz, Conger, Simons, Whibeck, & Elder, 1991; Matthews, Conger, & Wickrama, 1996; Suen & Ary, 1989)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제3자 보고 또는 관찰 등에 따른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가족관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에 사용된 변수가 모두 일회적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나타난 경제적 압박과 가족 외부 지원의 상호작용 효과, 즉 가족 외부 지원의 경제적 압박에 대한 완화 효과가 종단적인 가족스트레스 과정에 대한 완화 효과라기보다는 상관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가족 외부 지원의 장기적인 효과와 가족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대처해 나가는 레질리언스의 과정(Patterson, 1998; Walsh, 2006)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같은 가족으로부터 연속해서 정보를 구하는 종단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 나라가 전대미문의 총체적인 경제 위기를 겪을 당시에 남편과 아내로부터 동시에 정보를 구하여 수행된 연구로서, 가족스트레스 과정에서 사회적 지원이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는 역할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가족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는 레질리언스에 대한 개념 및 과정에 대한 연구에 한 발 다가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장기적인 침체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이 10여년 전에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당시와 현재의 경제 위기의 성격 및 부부관계, 가능한 사회적 지원의 특성들 또한 변화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현재의 가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고선주 (1996). 부부취업가족의 부모기 전이후 결혼적응에 대한 이중 ABCX 모델의 적용.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 131-157.
- 고정자 (1998). 맞벌이부부의 직업관련분수가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4), 163-178.
- 곽인숙, 송효숙, 김정애 (1999). 경제적 위기가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 -IMF관리체제 전후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21-137.
- 박명희 (1998). 국가경제위기-가정에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한가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박미금(1994). 부부의 생활만족도 비교 분석: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2(1), 1-17.
- 안병철 (1998). 실업과 가족- 실업의 영향, 매개요인,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경희 (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화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유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미숙, 고선주, 권희경 (2000).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및 생활의 질. 대한가정학회지, 38(6), 117-133.
- 이희정, 이숙현 (1995).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긍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6), 25-41.
- 정현숙 (1997). 결혼만족도 측정을 위한 문헌 고찰과 척도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 191-124.
- 조은숙 · 박혜인 (1998). 경제위기이후 혼례비용의 계층별 변화-대구시민에 대한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39-154.
- 최규련 (1999). 실직자 가족의 문제와 대처, 우울감 및 심리문제 해결지원요구도 -실직자 아내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47-51.
- 최혜경(1998). 실직자 가정의 가족생활. 대한가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통계청(2004).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도시).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L60003&IDTYPE=3.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Boss, P. (2000). *Family Stress Management: A Contextual Approach*. Thousand Oaks, CA: Sage.
- Cohen, S., Kamarck, T., & Mermelstein, R. (1983).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385-396.
- Conger, R. D., & Conger, K. J. (2002). Resilience in midwestern families, Selected findings from the first decade of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2), 361-373.
- Conger, R.D. & Elder, G.H.Jr. (1994). *Families in Troubled Times: Adapting to Change in Rural America*. New York: Aldine de Gruyter.
- Conger, K.J., Rueter, M.A., & Conger, R.D. (2000). The role of economic pressure in the lives of parents and their adolescents: The family stress model. In L.J. Crockett, & R.K. Silbereisen, (Eds.) *Negotiating Adolescence in Times of Social Change* (pp. 201-22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nger, R. D., Ge, X-J., & Lorenz, F. O. (1994). Economic stress and marital relations. In R. D. Conger and G. H. Elder Jr. (Eds.). *Families in troubled times, Adopting to change in Rural America*. (pp. 187-203). New York: Aldine de Gruyter.
- Conger, R.D., Rueter, M.A., and Elder, G.H.Jr. (1999). Couple resilience to economic pres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54-71.
- Cutrona, C. E. (1996). Social support as a determinant of marital quality: The interplay of negative and supportive behaviors. In G. R. Pierce, B. R. Sarason (Eds.), *Handbook of Social Support and the Family* (pp. 173-194). New York: Plenum.
- Elder, G.H. Jr., Conger, R.D., Foster, E.M., and Ardel, M. (1992). Families under economic pressure. *Journal of Family Issues*, 13, 5-37.
- Elder, G. H. Jr., & Caspi, A. (1988). Economic stress in lives, Developmental perspectives. *Journal of Social Issues*, 44, 25-45.
- Hawley, D.R. & DeHaan, L. (1996). Toward a definition of family resilience: Integrating life-span and family perspectives. *Family Process*, 35, 283-299.
- Julien, D., & Markman, H. J. (1991). Social support and social networks as determinants of individual and marital outcom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549-568.
- Kwon, H-K. (2003). *Linking Economic Pressure to Adolescent Depression: Evaluating the role of Parenting*. University of Minnesot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Kwon, H-K., Rueter, M. A., Lee, M-S. Koh, S., & Ok, S. (2003). Marital relationships Following the Korean economic crisis : Applying the Family Stress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 316-325.

- Lempers, J., Clark-Lempers, D., & Simons, R. L. (1989).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0, 25-39.
- McCubbin, H.I. & McCubbin, M.A. (1988). Typologies of resilient families: Emerging roles of social class and ethnicity. *Family Relations*, 37, 247-254.
- Meyhew, K. P. (1998). Family financial strain and family relationship perceptions, Predictors of adolescent depressed mo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 Meyhew, K. P., & Lempers, J. D. (1998). The relationship among financial strain, parenting, parent self-esteem,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8, 145-172.
- Matthews, L. S., Wickrama, K. A. S., & Conger, R. D. (1996). Predicting marital instability from spouse and observer reports of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641-655.
- Patterson, J.(2002). Integrating Family Resilience and Family Stress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349-360.
- Patterson, J.(1988). Families experiencing stress: The family adjustment and adaptation response model. *Family Systems Medicine*, 5(2), 202-237.
- Perlin, L. I., & McCall., M. E. (1990). Occupational stress and marital support: A description of microprocesses. In J. Eckenrode & S. Core (Eds.), *Stress between Work and Family* (pp. 39-60). New York: Plenum Press.
- Silliman, B. (1997). Resiliency in family system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 Schumm, W.R., Paff, B.A., Hatchruth, C., Obiorah, F.D., Copeland, J.M., Meens, L.D., & Buraighis, M.A. (1986).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Kansas Marital quality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381-387.
- Suen, H. K., & Ary, D. (1989). *Analyzing quantitative behavior observation data*, Hillsdale, NJ: Erlbaum.
- Vinokur, A. D., Price, R. H., & Caplan, R. D. (1996). Hard times and hurtful partners: How financial strain affects depress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unemployed persons and their spou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166-179.
- Voydanoff, P. (1990). Economic distress and family relations: A review of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099-1115.
- Walsh, F. (2006).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2nd Ed. New York: Guilford.
- White, L., & Rogers, S. J. (2000). Economic circumstances and family outcomes: A review of the 199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1035-1051.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결혼만족도에 대한 가족외부 지원과 경제적 압박의 상호작용 효과

성 미 애(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본 연구는 Conger와 Elder(1994)가 제시한 경제적 압박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모델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서, 가족 외부의 사회적 지원이 경제적 압박과 정서적 스트레스,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사이의 관계에서 완화 효과를 갖는지를 살펴보면, 이론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왔던 가족 레질리언스 개념을 실질적인 가족관계에서 검증해 보고자 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현재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제위기가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삶의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도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가족생활주기 상 경제적 압박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자녀교육기 가족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다음에서는 몇 가지 보완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그림 2>에 제시된 본 연구의 가설을 도식화한 결과를 보면, Conger와 Elder의 모델과는 달리 평면적 연구모형을 제시하여 경제적 압박이 부부 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부갈등 및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연구자가 제시한 대로 경제적 압박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모델에 등장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적 지원이 경제적 압박과 상호작용하여 경제적 압박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면 Conger와 Elder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경제적 압박과 가족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해서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 하에 있을 때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나, 지금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부부관계에 시사점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연구 모형이며, 연구결과이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가 문제제기에서부터 결론 및 논의에 이르기 까지 전체 논문에 언급이 되어야 한다. 특히 지금의 경제위기는 우리나라만 위기상황에 처했던 IMF 관리체제 하의 상황과는 달리 전 지구적으로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이러한 사회적 차이를 고려한 논의들을 포함하여 이전 연구 자료의 결과를 지금 분석해서 살펴보는 의의를 부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표 1>에 각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척도 범위, 신뢰도 등을 제시하여 연구자료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젠더 차이가 있다고 보고된 사회심리적 변수(예: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스트레스 수준 등)가 함께 고려되고 있는 만큼, 젠더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모형도 연구결과

의 의의를 살리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보완점들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밝혀낸 가족외부지원이 낮은 집단에서는 경제적 압박에 수준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은, 현 상황에서도 시사점이 크다. 따라서 가족외부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사적인 지원 원천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인 지원 원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시·군·구에 소재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센터의 역할과 관련해서 논의를 도출한다면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모형 제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